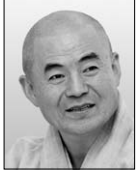


일주문



범광경 산림대법회 법문
조계종 원로의원 정무 스님은 3월 16일 오전 10시 조계사 <범광경> 산림대법회에 참석해 법문한다.(02)732-21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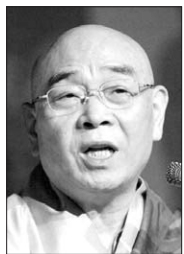
동국대 개강법회서 법문
충주 석종사 금봉선원장 혜국 스님은 3월 18일 오후 5시 동국대 서울캠퍼스 정각원 법당에서 열리는 개강법회에 참석해 법문한다.



탁월한 불교여성상 수상
조계종 전국비구니회장 명성 스님이 3월 7일 UN 국제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 지위향상을위한협회가 수여하는 '탁월한 불교여성상'을 수상했다.

“금강경 실천 운동 일어나야”

공생선원서 '금강경 강의' 헤거 스님



서울 강남 지역에서 20년 동안 30만 명에게 각종 경전들을 강의해 온 헤거 스님(금강선원장)이 강북에서 법석을 폈다. 3월 6일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공생선원(선원장 무각)에서 <금강경> 강화를 시작한 것. 첫 강의에서 “불자들이 당당하게 살길 바란다. 당당함을 갖기 위해서는 스스로 깊이 공부하고 수행하며 불자가 사는 것이 즐거워야 하는 것”이라며 “기복적 시행에서 벗어나는 것이 자기를 당당한 깨침의 주인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스님은 “<금강경>을 제대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경전을 통째로 외우겠다는 원력과 노력이 있어야 한다”며 “<금강경>은 머리로 공부한다고 와 닿는 진리가 아니고 그 가르침들을 생활 속에 실천하는 <금강경>운동이 일어날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화는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두 시간씩 6개월 동안 진행된다. 임태기 기자



유광진 동국대 이사 별세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유광진 이사(동국대 명예교수)가 3월 2일 별세했다. 향년 65세. 유광진 이사는 1960년 대구 대륜고등학교를, 64년 동국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후 동국대 정치학과 석사(1966년), 동국대 정치학과 박사(1978년) 과정을 마쳤다. 유 이사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동국대 행정대학원장·기획조정실장·총무처장·사회과학대학장·학생처장 등을 역임하고 지난해 11월 법인 이사로 선임됐다. 조동섭 기자

“한국불교 세계에 알리는데 힘쓸 터”

일미 스님 미국 애리조나대 교수 임용돼

2007년 미국 하버드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일미 스님이 미국 애리조나대 교수로 임용됐다. 한국스님의 미국 대학 교수임용은 2007년 웹스터대에 교수임용된 헤민 스님에 이어 두 번째다. 일미 스님은 “교수 임용으로 본격적인 연구 활동에 매진할 수 있게 됐다”며 소감을 밝혔다. 전남 장성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일미 스님은 속가 삼촌인 지법 스님(제주 불광사 주지) 손에 이끌려 출가했다. 검정고사로 1989년 동국대 불교학과에 입학했다. 학부 졸업 후에는 서구 불교를 알고자 1996년 독

일로 유학 갔었다. 휘광 스님(뉴욕 불광사 주지)과의 인연으로 도미한 뒤, 하버드대에 진학한 스님은 1999년 하버드대 신학대 석사과정, 2002년 박사과정에 진학했다. 2007년 한국불교 근대화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과 일본의 불교관계를 고찰한 ‘한일불교 관계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하버드대에서 박사후연구과정(Post-doc)인 스님은 6월 월연구정을 마치고 애리조나대에서 일본과 한국 불교학 관련강의를 담당하게 된다. 자신의 교수임용을 “한국불교가 미국에서 목소리 낼 수 있는

또 하나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자평한 스님은 “한국불교를 세계에 알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학자양성”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현재 미국의 불교연구 트렌드가 책 등 이론을 넘어 직접 조사·체험하는 것”이라며, 일본 불교를 전공하는 학생들 다수가 일본에 방문해 수개월 이상씩 체류하며 자료를 찾고 선사를 만나고 있는 현실을 전했다. “현재 애리조나대 동양학과 학부·대학원 재학생 50여명 가운데 한국불교를 전공하는 학생은 한명 뿐이다. 한국불교를 전공하는 학생을 늘리기 위해서는



이들이 한국불교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국내외에서 여건을 갖춰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스님은 한국의 스님과 불자들의 협조를 부탁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news.com

고창사회복지관 자비의 쌀 전달



고창군 종합사회복지관장(무궁)은 3월 3일 한화그룹이 '사랑의 쌀 나눔' 사업 일환으로 기증한 쌀 2000리포대를 지역 독거노인과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가정에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선운사 주지 법만 스님은 “앞으로도 다양한 수요처를 발굴해 지속적인 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금강불교대·동해유지원 입학식



천태종 대구지부 대성사(주지 도산)는 3월 3일 서원당에서 금강불교대학(학장 윤수현) 제5기 입학식을 열고 166명의 신입생을 맞았다. 이어 대성사는 5일 제24회 동해유지원 원생 201명의 입학식도 개최했다. 손현천 대구지사장

불광불교대학 입학식



대구 불광사 불광불교대학(학장 성봉사)은 3월 6일 말본전 대법당에서 제2기 근교리반 신입생 120명에 대한 입학식을 거행했다. 학장스님은 “한 주에 한 시간만 투자하면 인생이 달라지고, 불교의 함께 새로운 삶을 발견할 수 있다”고 격려했다. 손현천 대구지사장

우리불원 점안 및 개원식



대한불교통조계종 우리불원(주지 일오)은 3월 2일 양산시 북부동에서 점안식 및 개원식을 봉행했다. 총무원장 능인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 200여명이 참석한 이날 개원식에서 능인 스님은 “전법도량을 수행하는 참모습에서 탐진치를 버리고 불법 정진하여 다같이 인연 맺어 성불의 길로 가자”고 축사했다. 청운경남부지사장

“노숙인 사회복귀 프로그램 강화”

서울노숙인복지시설협회 2대 회장 지거 스님



“노숙인에 대한 인식 재고, 노숙인시설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 등은 풀리지 않은 숙제입니다. 제가 다시 소임을 맡았으니 노숙인 복지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월 27일 영등포장애인복지관 소강당에서 개최된 ‘2008년 서울시노숙인복지시설협회 정기총회’에서 보현의집 기초해결센터 원장 지거 스님이 제2대 협회장에 연임했다. 지거 스님은 3년 전 불교계 최초 복지시설협회장으로 당선돼 임기동안 80여개 노숙인복지시설협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노숙인 시설 종사자들의 인건비 20%를 인상하는 등 취임 초 계획했던 사업 목표를 꾸준히 달성해왔다. 보현의집에서는 6년간 원장을 맡고 있다. 김강진 기자

이러한 경력을 바탕으로 스님은 “그동안 진행된 노숙인 사업들을 보다 체계화하고 노숙인의 복지와 인권 그리고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스님은 2008년 현재 서울시노숙인복지시설협회가 50여개의 협회 회원시설과 20여개의 노숙인 관련시설을 대표하고 있어 적지 않은 규모라 사단법인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 법인화를 추진하고 있다. 김강진 기자

문필기 할머니 타계 나눔의 집 추모공원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여성들의 보급자 리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원장 원행)에서 기거하던 문필기 할머니가 3월 5일 양평 용문운도사에서 타계해 7일 나눔의 집 추모공원에서 영면에 들었다. 향년 84세. 1925년 경기도 진양군에서 태어난 문 할머니는 18세 되던 해인 1943년 중국 지린성(吉林省) 창춘(長春) 위안소에 강제 동원, 광복이 될 때까지 피해 생활을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다시 대한민국에 입국 해서 어려운 생활을 하던 문 할머니는 1992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신고, 1993년 등록됐으며 2003년부터는 나눔의 집에서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살았다. 한편 나눔의 집에서는 올해 지들이 할머니에 이어 문 필기 할머니가 연이어 작고함에 따라 위안부 피해 생존 할머니들의 요양시설 건립 문제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김강진 기자

“대구경북 범음범패 활성화 최선”

태고종 구룡사 불교대학 강주 상진 스님



“상주권공 등 의식불교를 차근차근 잘 가르쳐겠습니다.” 대구 구룡사 불교대학 강주 상진 스님은 이 같은 포부를 밝혔다. 철하 스님(마산 원각사)을 은사로 출가한 스

님은 동방불교대학과 봉원사 등에서 불교전통의식을 배웠다. 스님은 “대구 경북 불교대학이 폐교돼 안타까웠는데 최근 구룡사 불교전통의식 교육원이 개원돼 지역 불자들의 불교문화 교

육 불사에 큰 전기가 마련됐다”며 “과거 유명했던 팔공산 범패처럼 대구경북지역 범패를 활성화 하겠다는 원력을 세웠다”고 각오를 밝혔다. 조동섭 기자

아주 특별한 영치유의 세계!!

미국최면의과대학과(Hypnosis Career College) 학술교류 협정

제33기 최면 「전생·빙의 특별 워크숍」



“한마디 말”로三生을 꿰뚫고, 영혼의 아픔을 치유한다.

개강안내 3월 13일 10:00~17:00까지
수련과정 매주 목요일 본원출석 7회과정
▶과정별 교재 및 수련태도 제공
▶수련비: 200만원
▶특전: 전생상담 이수증 발급 및 한국최면지도사협회 가입시 정기적 보충교육 실시

국제 공인 최면전문가 자격증 취득 가능

한국최면과학원 임재형박사 직강
미국 최면의과대학 객원교수
커네티컷대학교 상담학 박사
국제 공인 임상 최면치료사(ICHT)
한국최면지도사협회장
미국 국제최면 치유학회 이사
일본 최면의학심리학회 회원

인천교대, 충남대, 청주대 에서 최면학 강의
공무원 연수원, 군부대, 기업체 등 에서 생활최면 특강

KBS, MBC, SBS 등 각종 TV방송에 다수 출연

저서: 자기최면학, 타인최면학, 생활최면, 최면학 총론, 최면요법 등

전생(前生), 사주팔자(四柱八字), 빙의(憑依)에 얽힌 삼각관계를 아십니까?

전생의 성적표인 사주팔자는 빙의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본 강좌는 사례중심의 시청각 교육 등 많은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철저한 실기위주로 지도하여 그 해답을 통쾌히 풀어 드립니다.

Table with 2 columns: Topic (빙의치유법, 전생요법, 명리학, 최면학) and Description of the course content.

▶안내자료 및 공개특강 비디오를 보내드립니다.(1만원)



강의를 마치는 즉시 현장에서 바로 활용됩니다



한국최면과학원
홈페이지: www.hypnos114.com
대전광역시 중구 대성동 248-301
(대전시민회관 후문 청운빌딩 2층)
전화: (042) 255-0734-5